

# 보도자료

(2004.10.22)

## “전체주의 속의 북한언론현황”

### 프랑스, 국경없는기자단(RSF) 북한언론자유현황 보고서 발표

지난 3년간 북한은 국경없는기자단(RSF) 세계언론자유도 평가에서 최하위위국가로 기록되고있다. 특히 평양은 핵무기개발과 관련해 협상을 외면한 채 국제문제를 야기하고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북한의 소극적인 개방조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평양의 봄”이 도래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곳엔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국경없는기자단(RSF)이 전직 북한 언론인, 한국 및 해외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수집분석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언론은 당에 의해 통제 받고있고 일부 언론은 김정일 개인의 직접 통제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향후 개선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북한 언론은 매우 의례적으로 “개혁”이란 단어를 쓴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루한 선전선동의 맥박일 것이다.

당에 의해 조직된 모든 기자들은 철저히 계급화된 언론조직 내에서 당이 제시한 소위 “보도의 항구적 방침”을 따라야 한다. 최우선 원칙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위대성을 알리라”. “북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라”. “제국주의와 주주자본가의 부패성”, “미,일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고발하라”.

국경없는기자단(RSF)이 공개한 “전체주의 속의 북한언론현황”이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40여명의 언론인이 소위 “혁명화 조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사의 철자가 틀리거나 공직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할 경우 “혁명적 정신재무장”을 위해 “무급노동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으로 20만여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에 보내지는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북한 기자, 송금철은 당에서 밝히고있는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해 동료들에게 의구심을 보이자 1996년 실종됐다.

북한에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공식 뉴스는 국외에서 발신

하는 방송뿐이다. 북한에서는 라디오와 TV의 주파수와 채널이 낡은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국외방송을 접할 경우 실행을 받기도 한다. 2003년부터 당은 라디오를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라디오 등록확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경없는기자단(RSF)은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언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고/ 보고서 원문은 영어와 불어로 인터넷 웹사이트 [www.rsf.org](http://www.rsf.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